

5월 '발명의 달' 맞아 다양한 발명행사 갖다



▲ 뛰어난 여성용품들과 여성발명가들의 상품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2004 여성용품 및 발명품 박람회'의 개막식에서 박람회 개요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 참석 내빈들.

특허청은 5월 '발명의 달'을 맞아 '지식강국, 발명으로 열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전국민이 발명과 친숙해지고 발명을 생활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함과 동시에, 우수특허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약 2백여개의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했다.

먼저 올해로써 39회를 맞는 '발명의 날(5월 19일)'에는 '산업재산권 출원 30만건 돌파'를 기념하여 발명유공자, 우수발명기업체, 발명학생 및 지도교사 등 약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엑스(COEX) 오디토리움(서울 삼성동 소재)에서 기념식을 가졌다.

기념식에는 발명특허 등 지식재산분야에 공헌이 많은 유공자에게 훈·포장 및 표창이 수여되었으며, 수상자 성공사례 발표와 우수특허기술 전시 등 부대행사도 함께 개최되었다.

또한 특허기술 및 발명품을 전시하는 '특허기술이전박람회(5. 12 ~ 14, 코엑스 신관 3층 컨벤션홀)'와 여성들의

우수한 발명품을 만날 수 있는 '2004 여성용품 및 발명품 박람회(5. 4 ~ 6, 코엑스 태평양관)' 등을 통해 특허기술의 거래활성화와 특허제품의 판로개척을 지원 했다.

그리고 '해외지식재산권보호 설명회(5. 7,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와 각종 지재산 관련 학술세미나 및 지역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지식재산권과 발명의 중요성에 대한 범국민적인 인식을 제고하는데 힘썼다.

아울러 지식재산의 창출 및 발명품 조성을 위해, '특허사업화 성공사례 발표회(5. 13, 코엑스 컨퍼런스센터)', '제10회 여성발명 우수사례 발표회(5. 4, 코엑스 태평양관)', '전국발명표어공모전(4. 19 ~ 5. 18)', '낙도·오지 어린이 초청' 등 발명 이벤트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자라나는 발명꿈나무의 발명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각 시·도 교육청과 전국 발명공작교실을 중심으로 다양한 학생발명행사도 진행되었다.

특히 금년 '발명의 달'에는 지역의 지식재산 인식제고 및 발명품 조성에 주안점을 두고 작년에 구축된 전국 31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지역상공단체 등과 연계하여 지역별로 지식재산 세미나, 직부발명경진대회 등 약 70여개의 발명행사가 개최되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지자체·지역상공단체·지역 대학 및 연구소 등을 네트워크화 하여 지역특산품의 고급화를 위한 특허기술 개발, 지역 브랜드의 개발 등 지역의 지식재산산업의 육성 및 세계화를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04 대한민국 특허기술이전 박람회' 개최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특허 중 사업추진 유망기술만을 한자리에 모아 새롭게 사업화로 이어줄 주인을 찾기 위한 박람회가 개최되었다.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2004 대한민국 특허기술이전박람회'는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우수특허기술을 발굴·소개하여 기업으로의 기술이전을 활성화시키고 이들 기술이 사업화 등 실용화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지난 5월 12일(수)부터 14일(금)까지 3일 동안 코엑스 신관 3층 컨벤션홀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박람회는 이전 특허관, 기술 장터관, 지원관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이전 특허관에는 포항공대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총 58여개의 대학·연구기관·기업 등이 출품한 1백67개 특허기술이 전시되었고, 기술 장터관에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80개 특허기술이 전시되었으며, 지

원관에는 기술거래기관, 기술평가기관, 사업화지원기관 등의 전문가에 의해 기술이전상담 및 특허기술사업화를 위한 지원내용 등이 소개되었다.

이번에 전시된 특허기술 중에는 수직벽면 보행이 가능한 자석식 로봇바퀴, 상온유통이 가능하고 손쉽게 담그는 김치용 종합소스, 빛의 투과율을 자유자재로 조절하는 지능형 스마트 유리 등 이색기술이 선보여 보는 이들로 하여금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부대 행사로는 기술이전 세미나를 열어 기술공급자와 기술수요자간 기술이전계약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 법적 문제 및 기업의 특허관리전략 등을 소개하였고, 또한 특허기술사업화 성공사례 발표회를 통하여 우수특허기술로 사업화에 성공한 기업의 특허기술 개발과정, 유통 및 판매과정 등 사업화 전략을 발표·시상하는 자리도 함께 가졌다.

LG전자 & 일본 노스 양산기술 주고 특허기술 받는다

국내 전자업체가 원천기술 부족으로 특허 공세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LG전자가 특허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LG전자는 '최근 일본의 노스(North)와 인쇄회로기판(PCB)의 빌드업 제조공법인 NMBI에 대해 공동 기술마케팅과 로열티 배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NMBI란 반도체나 휴대폰에 각종 회로를 장치하는 핵심 기판인 PCB를 여러 층으로 쌓을 수 있는(Build-up) 기술 중 하나로, 다양한 기능이 추가되는 디지털기 추세에 맞춰 PCB도 작은 공간에 많은 회로를 넣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부각되고 있는 공법으로 기술전문 기업인 일본 노스가 2000년에 개발하였다.

LG전자는 PCB사업 확장을 위해 이 기술이 필요했지만 제조를 하지 않는 노스와는 다른 특허로 크로스 라이선싱(특허상계)을 할 수도 없고 오직 로열티를 주고 사오는 방법뿐이었다. 높은 로열티를 쥐서는 수익성을 갇출 수 없다고 판단한 LG전자는 NMBI 기술로 제품을 양산할 수 있는 새로운 버전을 개발해 기술을 공유하는 전략을 택했다.

배형상 LG전자 DMC 사업부 경영기획부장은 '노스 기술은 이론적 수준이었고 이를 상용화하는 데는 양산라인에 적용하는 새로운 프로세스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2년 간 연구 끝에 지난해 말 LG전자는 NMBI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NMBI II'를 개발했고 자체 생산하는 MP3폰에 적용해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는 데 성공했다. 이론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개발 막판에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구진에 의한 검증절차도 거쳤다.

미국 일본 등에 NMBI II에 대한 특허까지 출원한 LG전자는 노스에 양쪽 기술을 공유하는 공동 마케팅을 제의했고 지난달 말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국제 전자회로산업기자재전(KPCA SHOW) 2004'에서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LG전자가 제품을 만들어 해외에 수출하고 여기서 벌어들이는 기술 로열티는 절반씩 나누는 게 골자.

배 부장은 'LG전자는 제품을 만들어 팔고 노스는 자사의 원천기술을 세계적으로 확산시켜 로열티 수입을 늘리는 윈윈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LG전자는 이번 계약에 힘입어 지난해 3천5백억원이었던 PCB 매출이 올해 4천5백억원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음식이든 한국표준협회의 협정한 심사를 거쳐 국내 우수제품 중에서 최고의 품질과 제품성이 인정되는 유익한 제품에만 부여되는 인증제도입니다.

카보나란, Charcoal(숯)+carbon(탄소)+나(我)의 합성어로 숯을 태운다. 즉, 탄소의 결정체인 '숯에 있는 수많은 효능이 사용하는 고객과 한몫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숯의 신비 - Carbona 카보나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무턱대고 굽지마십시오!

카보나는, 원적외선과 음이온이 발산되므로 건강에 좋습니다
카보나는, 연기가 없고 냄새를 제거하므로 공기를 정화시킵니다
카보나는, 고기맛을 좋게하고 사용후 불판을 쉽게 닦을 수 있습니다

여과작용·탈취작용·습도조절작용·해독작용·정화작용·원적외선 및 음이온 발산·혈액순환

카보나는 천연 참숯을 원료로 만들었습니다

www.isdigital.co.kr

ISDigital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29-8호
TEL.(02)567-8080 FAX.(02)539-4600

'2004 여성용품 및 발명품 박람회' 열다

특허청과 중소기업청이 주최하고 한국여성발명협회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열린 '2004 여성용품 및 발명품 박람회'가 지난 5월 4일부터 6일까지 삼성동 코엑스에서 태평양관 3,4실에서 개최됐다.

특히 최근 사회적 이슈인 웰빙 관련 제품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갖가지 건강용품과 건강식품 등을 선보인 이번 박람회는 여성기업의 우수 여성용품 및 발명품을 발굴하여 경쟁력 및 브랜드 인

지도를 제고하여 판로개척을 지원함과 동시에 여성이 보유한 우수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열리는 국내 유일의 여성용품 및 발명품 박람회이다.

성대하게 막을 연 지난 5월 4일에는 하동만 특허청장, 유창무 중소기업청장, 안재현 여성부 차관, 한미영 한국여성발명협회 회장, 황덕남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직무대행, 김용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을 알렸다.

금년 박람회에는 패션, 액세서리, 생활용품, 건강용품 등 여성용품 및 발명품을 생산하는 1백20여개 업체가 참가하여 가정소비를 주도하는 여성들의 기호와 관심을 적극 반영한 웰빙 신제품들을 전시하고, 일반인들에게 무료 공개되었다.

특히 이번 전시품에는 '음이온 공기청정기(에어비타)',



▲ '2004 여성용품 및 발명품 박람회'의 개막을 알리는 축포를 터트리며 참석 내빈들이 자리를 하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유창무 중소기업청장, 안재현 여성부 차관, 한미영 한국여성발명협회장 등이 참석하였다.

'한지 가죽지갑(한지당)', '볼륨헤어(시크릿우먼)', '숯 구이판(아이에스디지털)', '콩 발효음료((주)콩그린 식품)' 등 관심만 가지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생활 속의 발명품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총 5천여명의 넓은 행사장은 육식 및 주방용품관, 웰빙 주얼리관, 미용용품관, 패션 및 잡화관, 선물용품관, 헬스 피트니스관, 식품관, 어린이용품관 등 8개 테마관으로 구성·전시되었으며, 특히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 장(場)을 마련하여 소비자들이 제품을 50~30% 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박람회 마지막 날 전시장을 둘러본 천혜선(28)씨는 '웰빙 붐에 맞는 상품들이 전시되어 건강에 관심이 많은 현대인들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다'며 '그러나 예년에 비해 품목들이 다양하지 않아 아쉽다. 내년에는 좀 더 많은 발명품과 우수상품들이 소개되기를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박람회를 주관한 한미영 한국여성발명협회 회장은 '나쁜 경기 속에서도 이번 박람회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여성들의 파워를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발명품들과 우수제품을 선보이기 위해 내년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다'고 약속했다.

'특허기술 사업화 성공사례 발표회' 통해 성공 사례 듣다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2004년도 상반기 '특허기술 사업화 성공사례 발표회'를 지난 5월 13일 오후 2시에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센터 311호에서 정태신 특허청 차장, 민경탁 한국발명진흥회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특허기술의 사업화에 대한 정보 제공과 동기부여로 중소기업·벤처 특허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이번 발표회는 '대한민국 특허기술이전 박람회'와 동시에 개최되어 특허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에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었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임팩트블랙홀(대표 허광용)의 자동차용 충격흡수 완화장치, ㈜아이트로닉스(대표 이승훈)의 디지털 영상 암호화 보안시스템 등 7개 기술이 특허기술 사업화 성공사례로 선정되어 이 기업들은 특허기술의 개발과정에서부터 사업화 및 판로확대 등 사업화 현장에서 겪었던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줌으로써 특허기술로 사업화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훌륭한 길잡이가 되어 주었다. 이번에 발표된 특허기술 사업화 성공사례는 책자로 제작·배포하는 동시에 한국지식재산센터(KIPS) 3층에 위치한 '특허기술 상설장터'의 성공 사례관에 전시된다.

책 속의 이야기 ⑩

발명으로 꿈을 이룬 지구촌의 여성들

무해하면서 더 효율적인 '전극' 발명

왕주헨은 상해의 한 전구 제조공장에서 기술자로 일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곳의 나쁜 작업 환경이 근로자들을 위협하고 있음을 알았다. 수차례의 의학실험에서 근로자들의 백혈구가 상당량 감소되고 전구의 원자재인 텅스텐의 주 성분 중 하나인 토륨 속에서 방사선이 과다 방출되어 근로자들 몸 안으로 침투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녀는 여러 해 동안 과다한 방사선을 방출하는 토륨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을 찾아내는데 수십 차례에 걸쳐 실험하고 실패하면서 토륨을 없애고 대체 물질인 세륨 함량을 증가하려고 했다. 그때까지는 텅스텐 전극에서 세륨 함량이 제조 부품의 전체 무게 가운데 1%를 넘지 못했다. 세륨 함량이 증가되면 완제품이 고온에서 분해되는 결함을 갖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주헨은 세륨 함량을 4.5%로 증가시켜도 분해되지 않도록 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이러한 발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작업 부품이 불에 타는 등의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1980년 발명가 왕주헨은 비로소 결실을 이루게 되었다. 종전의 텅스텐 토륨 전극에 비해서 그녀의 세륨 전극은 방사선을 방출하지 않으며 더 효율적이라는 장점이 있었다. 더구나 텅스텐 세륨 전극은 재래식 전구와 형광 네온관 또는 복사기 등에 쓰이는 전구의 수명을 연장시키기도 했다.

왕주헨의 발명은 수많은 중국 발명 가운데 하나였다. 1985년 4월 1일 비로서 중국에 특허법이 시행되었다. 그리고 마침내는 중국의 발명이 국제협력조약의 가입으로 국제출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왕주헨이 공장서 특허신청서를 제출한 바로 그날이었다. 또한 1987년에는 미국 특허를 비롯한 여러 개의 외국 특허가 그녀의 손에 쥐어졌다.

더욱이 그녀의 텅스텐 세륨 전극 규격이 1984년 국제표준에 의해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규약의 일부를 이루었다. 이로써 세계 각국 전문가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된 것이다. 이로써 그녀는 1987년 중국 국가가 수여하는 최고발명상을 받은 최초의 여성이 되었다.

'제10회 여성발명 우수사례 발표회' 성황리에 마친다



▲ 발표회에 참석한 내빈들과 우수사례 발표자. 아랫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류숙(쑤황기모아 대표), 김예애(이지벨브 대표), 박희경(팬캔 대표), 장미희(쑤아이엔 대표), 서혜민(쑤ALTO Lighting 디자이너), 이승국(한국여성경제인협회 부회장), 송주현(특허청 발명정책국장), 민경탁(한국발명진흥회 부회장), 한미영(한국여성발명협회 회장), 하동만(특허청장), 김양오(대한변리사회 부회장), 김화자(수원여대 학장), 유영기(한국특허정보원장).

2004년 발명의 달을 맞아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여성발명협회가 주관하여 '제10회 여성발명 우수사례 발표회'가 성대하게 치러졌다.

'2004 여성용품 및 발명품 박람회'가 시작된 지난 5월 4일 코엑스 태평양관 한쪽에 마련된 특설무대에서는 황토천 연염색 제품, 반영구적 속눈썹 연장기술 및 기계, 뽕잎 엇과 청국장 분말, 종이 프라이팬 뚜껑, 떠다니는 조명기구가 우수 발명으로 인정받아 소개되었다.

이번 발표회에는 하동만 특허청장, 한미영 한국여성발명협회 회장, 민경탁 한국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 유영기 한국특허정보원장, 김양오 대한변리사회 부회장, 김화자 수

원여대 학장 등 발명유관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사례 발표자로 선정된 6명에 대하여 시상하고 이들의 우수사례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동 발표회는 매년 여성발명인의 우수발명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소개함으로써 여성들의 발명의욕 고취와 잠재된 창의력을 일깨우기 위하여 개최되는 행사로서, 특히 이번 '제10회 여성발명 우수사례 발표회'는 '2004 여성용품 및 발명품 박람회'와 함께 열림으로써 더 많은 관심을 모았던 것으로 보인다.

우수사례 발표자로 선정된 여성발명가들은 '생활 속에서 느낀 불편함을 찾아내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 내는 데는 풍부한 감성과 섬세함을 지니고 있는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훨씬 유리하다'라고 입을 모았다.

이날 발표된 사례 속에는 공중에 떠다니는 조명기구(서혜민), 장기 부착 사용가능한 인조 속눈썹(장미희), 황토천연 염색(류숙), 프라이팬의 튀는 기름을 막는 종이 뚜껑(박희경), 혈압에 좋은 뽕잎 엇(이영근), 발로 조작하는 수도장치(김예애) 등 관심만 가지면 누구나 생활주변에서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발명품들이 소개되었다.

특히 이번 발표회를 통해 발표자들은 발명을 하게 된 동기와 연구개발 및 권리화, 사업화 과정 등 현장에서 겪었던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줌으로써 여성들이 생활 속에서 쉽게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이를 특허 권리화하여 사업화로 성공시킬 수 있는 노하우(Know-how)를 알려주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